

# 열반경에 전하는 미륵불과 감로 이야기

불교 열반경은 미래 출현할 미륵불과 불사 영생의 세상을 이루는 감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미래에 오실 미륵불이 감로수를 들고 나와 세상 사람의 죄를 사하고 불사 영생의 극락세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 핵심이 되는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성경이나 격암유록에 예언하는 구세주 정도령의 출현 시에 일어나는 현상과 대동소이하다.

열반경 6권 59페이지에는 “열반경에 나오는 미륵불이 계시는 곳은 금산과 같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금산과 같이 된다.” 금이란 것은 변치 않는 진리를 비유한 말이다. 곧 미래에 미륵불이 나타나는데 그때 미륵불이 계시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죽지 않는 몸을 이룬다는 뜻이다.

열반경 5권 49페이지에는 “감로가 있는 곳에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 감로라야 죄가 완전히 벗어져서 금산과 같이 되나니라.” 곧 사람이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뜻이다.

열반경 6권 61페이지에 “미륵부처님께서 제일 바라시는 것은 열반경을 널리 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모든 죄가 안개와 이슬이, 해가 나오면 없어지는 것과 같이 죄가 소멸된다.” 성경에는 쫓겨나서 죽는다고 했으니, 감로가 죄를 소멸하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열반경 9권 90페이지에 “감로의 광명이 사람의 피부 털구멍으로 들어가면 성불한다.” 했고, 열반경 8권 77페이지에는, “감로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 했으며, 열반경 전권에, “미륵불을 만나면 누구나 죄가 다 소멸된다.” 하는 말씀이 있다.

성경에는, 이긴자 구세주가 출현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과 일과 만나를 가지고 나와, 먹게 함으로써 죽지 않게 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격암유록은 한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예언하고, 한민족 가운데서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하여, 감로해인의 역사를 통하여,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중에 말운론과 도부신인편에는 말세성군으로 오실 박태선 장로가 부천시 범박동에서 신앙촌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박태선 장로는 한 때 전도관 백오십만 신도들에게 생수를 축복하여 주며,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적을 일으켰던 불의 사자요, 영모님이라 불렸던 인물이다.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행한 목적은 성경 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구세주 이긴자 한 사람을 배출하기 위한 역사였다. 그래서 이긴자가 나타날 즈음에는, 전도관 해산 작전을 하며, 노망든 사람처럼 가장하여 신앙촌 기업을 파산되도록 하고,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하며, 예수를 쫓던 것은 진



짜 구세주 이긴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이긴자 앞에 가야 불사영생의 진리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던 것이다.

이것은 불경 열반경에서 예언하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다. 박태선 장로께서 신도들에게 이긴자 조희성님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전도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전도관 사람들이 소사 역곡에 있는 승리제단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납치하여 죽이려고 했다. 당시 박태선 장로께서 어떻게 구세주 이긴자를 증거했는지, 그 음성 녹음 일부를 들어보면 놀랍다.

처음에는 “조희성이 그거야 마귀 새끼가 하는 세계적인 장난이 아니고, 자

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줘 가지고 하는, 문선명이가 하는 것보다, 굉장히 쟁 것을 한다 이거야.”라고 했다.

그러나 신앙촌 사람들은 이 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조희성님이 이긴자라고 증거하지 않고, 에둘러 이긴자 구세주를 증거하였으니, 전도관 사람들은 앞의 마귀 새끼라는 말만 기억하고, 뒤의 전체적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승리제단 초창기에 수많은 전도관 사람들이 몰려와서, 조희성 정도령님을 욕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고 핍박했던 것이다.

다음에는 이긴자 구세주가 역곡에 있으니 찾아가라는 뜻으로 말씀하기를, “그 마귀 역사를 가지고도, 몸이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져도 전도한다 했는

데, 자신이 죄진 거, 원죄가 자기 몸 안에 있는 것을 예수 자신이 모르지 않았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면, 구원이 어디 가도 없어. 내가 전에 현금하고 하나님 믿으면 천당간다 했지만, 역천만번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보라. 이긴자 앞에 끌어올 자가 없어. 이긴자가 아니면 역곡에 끌어올 자가 없어.”라고 했다.

전도관에서 전도하다가 피전도자가 머리로 박아서 이빨이 부러진 사람은, 바로 구세주 정도령 조희성님 뿐이다. 이것은 하늘의 사람 박태선 장로님이, 그가 키우던 가지가 행하던 모든 일을 영적으로 내다 보고 알고 있었던 것이며, 그 가지가 되는 조희성님이 이긴자가 되어 경기도 소사구 역곡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 감로 이슬이 내리는 곳이 하늘나라 천국

그렇다면 이긴자 구세주 정도령님은 무엇을 이겨서 이긴자가 되었다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 속에 유전되어온 죄의 본질인 원죄와 선악과가 욕심이요, 욕심의 뿌리가 바로 나라는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처절하게 나라는 의식과 싸우며, 반대 생활을 통하여 죄악에 포로되어 있던 하나님의 심성인 양심이 이김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인간의 탈을 벗고 원래 하나님의 심령을 회복하여 구세주 이긴자가 된 것이다.

곧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성불하여, 생미륵부처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 결과, 하늘나라 양식인 감로 이슬성신을 가지고 나와서, 인간 속의 죄악을 소멸하고 모든 사람이 불사 영생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영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며,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세주가 구를 타고 내려오면 하루아침에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 구세주는, 신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죄의 본질과 생로병사의 자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진리 말씀을 가르쳐 주며, 인간

저마다 성령의 하나님 몸으로 거듭나서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긴자 구세주께서는 “이 세상에는 참 학문도 없고, 참 종교도 없다”고 설교하셨는데, 성경에는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치 못한 것을 폐하리라’ 했고, 석가는 ‘이 세상 글자는 그 뜻이 없는 반쪽 글자였다’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온전한 학문은 우주 만물과 인간이 생겨난 이치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고, 생로병사의 원인을 밝혀서 불사영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어야 온전한 진짜 학문이 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우주보다 귀한 것이 자기 생명이요 영생이다. 영생의 비결을 논하고 감로 이슬이 내리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영생할 몸을 이루어 이 땅에 모든 생명체가 죽음이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구세주 하나님의 감로이슬은 몸안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성령으로 거듭



▲ 생미륵부처님께서 설교하실 때 내린 감로 이슬

나서 참 사람 하나님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게 하는 불로초 불사약이다. 태초 이래 인류 역사 6천 년 만에 하나님이 이긴자 구세주를 배출하여 감로 이슬성신을 가지고 나왔으며, 참 진리의 학문이 나온 것이다. 구세주를 당대에 만난 사람들은 복중의 복을 받은 것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귀한 존재이며 기쁜 일이다. 구세주의 감로 이슬을 받은 사람은 구세주와 한 몸이 된 것과 같다. 마치 부모의 피를 받아 태어난 자식과

같은 이치다. 감로이슬은 구세주의 생명의 은혜요, 피와 같은 것이다.

성경 계시록에는, 구세주 이름이 밝은 별로 오실 것이 쓰여 있고, 불경에는 구세주의 성씨가 무리 조(曹)씨로 올 것이 쓰여 있다. 그리고 민족의 대언서 격암유록에는 구세주의 성과 이름이 무리 조씨와 새벽별 또는 밝은 별의 뜻을 가지고 나올 것을 전하고 있다.

우주 만물은 신의 작용에 의하여 변화되고 있다. 만물 자체가 신이며, 그 중에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이 내재하며 싸우고 있다. 그래서 두 신의 상호 작용에 의해 만물도 살다 죽으며 변화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신의 종류에는 생명의 신 하

나님과 사망의 신 마귀가 있다. 생명의 신 하나님은 양심이요, 사망의 신 마귀는 현재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욕심이다.

신의 작용에 의해 만물이 변한다는 것을 예로 들면, 인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 생명의 피가 변하는 것은 마음에 의해 물질이 변한다는 것이며, 마음에 의해 물질이 변한다는 것은 만물이 마음에 의해 변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공기도 하나님의 공기로 변하며, 사람이 악한 마귀 마음을 계속 먹게 되면 자신 속의 피도 빨리 썩게 된다. 인간에게서 나가는 악한 기운으로 인해 공기도 점점 더 산화 강도가 세져 사람이 호흡하여 마실 수 없는 산소로 변하여 쉽게 물질이 썩게 될 것이다.

더구나 각종 화학물질을 태우는 매연으로 인해 더욱 공기질이 나빠지고 있으며, 중국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구세주의 감로이슬이 세상에 나오으로써 인간이 그것을 먹고 악한 마음이 순화되면 선한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게 된다. 이와 더불어서 과학 문명도 선순환의 방향으로 발전하여 공기의 질이 급속도로 정화되고 맑아질 것이다.\*

서보목승사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10-7518-9981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